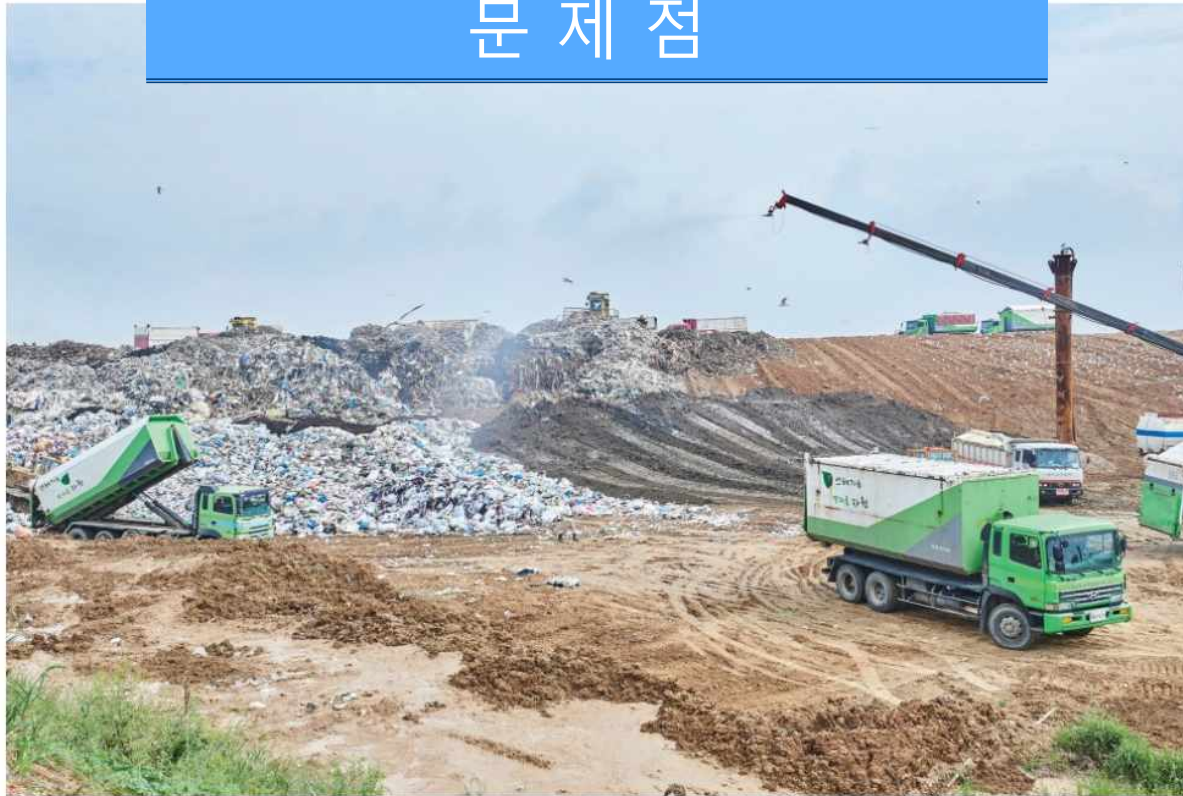


재활용 종량제 봉투 도입 제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주민

문 제 점



수도권매립지 전경 (출처: 경기방송)

-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되는 폐기물관리법이 지난 2021. 07. 06. 공포되면서, 수도권 지역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나,
- 매립을 금지하기위해 꼭 필요한 소각시설의 부지확보, 주민 반발 등을 극복하긴 쉽지않은 것이 현실

서울시 문제해결 방향 1

종량제 봉투 풀어보니 절반이 재활용품



입력 : 2018-03-29 13:53 | 수정 : 2018-03-29 13:53

재활용이 가능한 종이, 플라스틱 등을 종량제 봉투에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사람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.



▲ 쓰레기를 담은 종량제 봉투

환경부의 제5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결과 종량제 봉투 폐기물의 53.7%가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, 플라스틱 등으로 조사됐다. 2018.3.29
서울신문 DB

- 환경부 제5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결과 종량제 봉투 폐기물의 약54%가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, 플라스틱 등으로 조사되었으며,
- 서울시는 종량제 봉투에서 비닐류를 별도로 분류하여 자원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.

서울시 문제해결 방향 2

- 서울시는 2020. 11. 폐기물 부대설비 기본계획 업무협의를 통해 강남, 마포에 선별시설을 설치하여,
- 강남 300톤/일 투입 120톤/일 선별, 마포 250톤/일 투입 100톤/일 선별 총 220톤의 폐비닐을 선별
쌍용양회(시멘트업체)공급 하는 업무협의를 체결
- 2021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고시 설치비용은 약 737억원 예상
 - 생활자원회수센터 550톤/일 x 1.34억 = 737억원
- 운영금액 : 자원회수센터 동일 550톤/일 기준 16명으로 산정 14.6억원
 - 평균 인금 7천만원 x 16명 x 1.3(복리후생 및 사무비) = 14.6억원
- 폐비닐 운반비용 : 서울 - 동해시 왕복 운반비 산정 165억원
 - 유류비 x 통행비 x 인건비 x 차량유지비 x 기업이윤 = 250,000~300,000원/톤 예상
 - 일일 운반비용 = 250,000원/톤 x 220톤/일 x 300일/년 = 165억원
- 연간 운영비 = 181.6억원
- 시설 설치비 = 73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제안 사항

現 생활폐기물 분류



문제점 : 현재 재활용의 초점(방법)은 단순히 물질재활용에 맞춰져 있기때문에 회수가 가능한 자원 (플라스틱, 비닐 등)이 종량제 봉투에 혼합되어 버려지고 있음.

제안 사항

제안) 생활폐기물 분류



주민 : 종량제 봉투 비용 절감 효과
지자체 : 선별대상 폐기물 사전분류 가증



재활용 종량제 봉투는 무료 또는 종량제 봉투 절반가격으로 도입, 투명 비닐 사용으로 배출 신뢰성 확보 필요

제안 : 종량제 봉투로 버리고, 다시 선별, 운반하여 처리 하는 등의 불필요한 과정을 없애고, 전국최초로 재활용 종량제봉투 개념을 도입하여 자원을 회수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.

발생량 및 적용대상 추정

- 처리대상 생활폐기물 추정량(제291회 시의회 임시회 자료 참고)

구 분	2020년	2025년	비 고
처리대상량	2,850톤/일	3,970톤/일	
처리능력	2,343톤/일(4개소)	2,343톤/일	
부족용량	507톤/일	1,627톤/일	

※ 양천 400톤/일, 강남 900톤/일, 논원 800톤/일, 마포 750톤/일 = 2,850톤/일

※ 소각시설은 가동율 100%, 365일 가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300일 가동기준 부족량산정

· 2,850톤/일 x 300/365 = 약 2,343톤/일 운영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

- 2025년기준 약1,627톤/일의 시설확충 필요

기대효과

- 적용대상* :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내 폐비닐, 플라스틱, 종이 39.61%(종이20.8, 플라스틱류18.81)
 - 생활폐기물 발생량 3,970톤/일 x 39.61% = 1,573톤/일
 - **재활용 종량제 봉투적용시 약1,573톤/일의 생활폐기물 저감가능**
 - 재활용 종량제 봉투적용시 양질의 자원 2,397톤/일 회수와 **소각시설 신설 또는 증설 없이 직매립 제로화 달성** 가능
- 양질의 재활용품 회수를 통한 처리비용 절감
 - 환경부 문의결과 양질의 플라스틱, 비닐을 열분해하는시설을 재활용시설로 시행규칙 변경을 고려하는 중으로 파악하고 있다.
 - 열분해시설이 재활용 시설로 분류될 경우 재활용시설을 설치하여 1,573톤/일을 처리하여 유류, 전기, 열 에너지 등으로 회수할 경우 **여러 재활용 사업이 가능(지역난방, 수소충전소 등)**
-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생활폐기물 61.1% 재활용율 초과 달성 가능
- **시민 중심적, 친환경 재활용 선도도시 이미지 구축**
- **기대효과 : 폐비닐 선별시설 구축비용 737억원 연간운영비 181.6억원 절감 + @고질의 일자리 창출(신재생사업)**

* : 2020년 수도권매리지 성상분석자료 인용